

##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복선으로 해야

특별법 발의했지만 '단선' 우려  
경제성 낮고 수송 능력 떨어져  
예산 절감 절약·운행량 대폭 줄여  
차별 상징 호남선 전철 밟지 말고  
실시단계부터 복선으로 추진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 철도가 '단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낮은 경제성과 '저속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동시에 화합의 취지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초 복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단선으로 추진된 국내 철도가 대부분 복선화로 변경되는데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달빛고속철도가 무늬만 고속철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 특별법 처리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따라 호남·영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는 철도(4조5000억원)가 건설되게 된다. 이에 따라 영호남은 하계야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탄력을 받고,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기본방향에는 철도를 단선으로 추진하고, 향후 미래수요를 감안해 복선화 및 첨단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단선으로 계획된 철도를 복선화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롭다는 점이다.

실제,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한 원주~강릉 철도는 설계에서 착공까지 10년이 걸렸다. 이 노선은 애초 수요부족을 우려해 단선으로 계획하였으나 복선으로 뒤늦게 변경했다. 개통 이후, 1일 18회 운행(편도) 열차의 평일 판매율이 80%대, 주말 및 연말연시는 97%로 사실상 전 좌석 매진되는 등 계획보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중앙선 '도담-안동' 사업은 공사기간 중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해 올해 개통 예정이며, 차별의 상징으로 꼽히는 호남선은 지난 1968년 복선화 공사가 시작돼 개통 54년만인 지난 2003년에야 공사가 마무리 됐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미디어 데이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5일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작품을 소개하는 미디어 데이가 열렸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처럼 달빛내륙철도가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의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선화 방침이 분명해야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달빛내륙철도가 단선으로 추진되는 것은 비교적 저렴한 공사비 때문이다. 단선철도 건설 사업비는 복선 대비 70~80%가 소요된다. 문제는 달빛내륙철도가 단선으로 건설되면 비용은 소폭 줄일 수 있지만 선로용량(최고 운행횟수)은 복선에 비해 20~2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달빛내륙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할 경우, 비용·효과 측면에서 비용은 최고 30%가량 증가되는 반면 용량은 4~5배 대폭 증가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복선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달빛내륙철도의 복선화를 위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 '복선전철 추진'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현재 '영·호남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향후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복선화 및 첨단화 추진'으로 명시된 법안의 기본방향을 "고속철도의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선 추진"으로 변경해 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법안 기본방향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수요에 따른 경제성(B/C) 논란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가,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해 돼 있는 건설사업시행자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철도건설(고속, 일반, 광역철도)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공단에서 시행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탓에 복선화의 예산 부담과 경제성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할 전망이다. 달빛내륙철도는 앞서 2021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구보다 재밌다

You Tube  
광주일보

▲ 박찬호 나성범 ▲  
소크라테스

- ▶ 6면: 잡초 뒤덮인 인도... 어디로 다니라고?
- ▶ 11면: 미래도시의 터전 일구는 광주도시공사
- ▶ 18면: 치고 막고 달리고... 야구 쉽게하는 '박찬虎'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교육부, 9·4 추모 교사 징계 철회... "신분 불이익 없다"

### "연가·병가 교사 공식 파악 안해"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기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경고나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

있으며, '갈등의 치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

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교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원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무풍지대  
건조식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 원적외선 진공 건조기 이야기

반도체는 TV의 기본 부품입니다. TV의 외부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품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이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수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래 속의 실리콘으로 웨이퍼를 만든 공장에서 시작하여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등 여러 공정을 거쳐 패키징 공정으로 끝납니다.

웨이퍼는 가공 공정을 거칠 때마다 웨이퍼 표면에 있는 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산 같은 화학 약품으로 세척을 하고 조순수로 표면을 깨끗하게 한 후 진공 상태에서 건조를 합니다. 이 건조 공정 중에는 작은 먼지 입자 하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빠른 생산을 위해서 조고속으로 건조를 해야 합니다. 건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풍지대 <원적외선 진공 속성 건조기>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건조기를 식품 건조에 최적화 한 장비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는 웨이퍼는 수분을 최대한 날려 보내면 되지만, ☞무풍지대의 <원적외선 진공속성 건조기>는 건조 대상 원물에 따라 수분의 함량을 조절 하여야 합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보다 더 까다로운 건조 운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멸균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건조 시간, 압력, 원적외선 조사량을 달리하여 기존 방식보다 10~20배 빨리 건조하여 멸균 외관 변형이 적으며 고유의 맛, 향, 식감 유지에 탁월합니다.

TV의 겉에 드러나지 않는 반도체가 성능이 떨어지면 TV 화질이 떨어집니다. 다양한 국물 요리에 멸치는 보이지 않지만 멸치의 품질이 떨어지면 국물의 맛이 떨어집니다.

☞무풍지대는 공기 좋은 사천에서 프리미엄 멸치 판매, 제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 상담 또는 대리점(영업희망자)  
문의 : (055)835-0828  
홈페이지 : http://www.moopong.co.kr